

## 문턱 6

모든 답 뒤에 있는 질문.

내 삶의 대부분 동안 나는 답을 쫓았다.

거의 모두가 그러듯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고 싶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내가 살고 있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료함을 원했다.

방향을.

확인을.

성숙이란 답을 쌓아 가는 일이라고 믿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작동 방식을 더 이해해야  
마땅했다.

경험이 쌓일수록 의심은 줄어들어야 마땅했다.

우아한 이론이었다.

문제는 삶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했다는 것이다.

세월은 흘렀다.

경험은 늘었다.

책임은 커졌다.

그런데도 질문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더 깊어졌다.

더 복잡해졌다.

더 어려워졌다.

흔들어 놓는 발견이었다.

소년 시절 나는 어른들을 이해를 끝낸 사람들로  
상상했다.

그러다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그저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을 뿐임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아는 것과 계속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많은 이가 계속한다.

정말로 아는 이는 드물다.

어디에서나 답을 찾던 시기를 기억한다.

책 속에서.

조직 속에서.

여행 속에서.

더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서.

영성 속에서.

합리성 속에서.

숫자 속에서.

어딘가에 모든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설명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나의 공식.

하나의 열쇠.

하나의 체계.

그러나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  
찾아와 그것을 흔들었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그러다 흥미로워졌다.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답은 수명이 짧다.

옳은 질문은 수명이 길다.

아주 길다.

어떤 질문은 수십 년 동안 우리와 동행한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위해서라면 고통받을 만한가?

모든 것이 변할 때 무엇이 남는가?

풀어야 할 질문들이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질문들이다.

그 차이는 본질적이다.

답은 닫는다.

질문은 연다.

그리고 삶은 결국 열림을 더 좋아한다.

새로운 경험을 건널 때마다, 가치는 도달한 결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경험이 낳은 물음에 있었다.

상실은 질문을 낳는다.

사랑은 질문을 낳는다.

병은 질문을 낳는다.

승리는 질문을 낳는다.

심지어 성공도 질문을 낳는다.

종종 실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을.

무언가를 얻고 나면 뜻밖의 물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나는 사물의 의미가 답 속에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다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만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은 확신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기도 했다.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었다.

열려 있는 것이었다.

현실이 자신의 신념보다 더 넓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틀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자신의 결론보다 더 풍요롭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다.

나약해서가 아니다.

지성 때문이다.

진정한 지성은 많은 답을 가지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질문이 아직 물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여러 나라를 다녔다.

여러 문화를.

여러 종교를.

여러 체제를.

모든 곳이 서로 다른 답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질문은 거의 언제나 똑같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과 함께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 사실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보편적인 무언가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문명은 언어를 바꾼다.

본질적인 질문은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바로 그래서 이야기 문학이 살아남는 것이다.

해결책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탐사를 주기 때문이다.

소설은 삶을 풀어내는 데 쓰이지 않는다.

질문 하나를 비추는 데 쓰인다.

그리고 좋은 질문 하나는 한 사람과 여러 해를 동행할 수 있다.

많은 답보다 낮게.

내가 버린 모든 확신을 되짚어 보던 어느 날을 기억한다.

그 수는 많았다.

많은 확신이 내 생의 긴 시기를 다스렸다.

어떤 것은 유용했다.

어떤 것은 덜 유용했다.

그러나 모두가 더 성숙한 무언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현실은 법정이 아니라는 깨달음.

현실은 대화다.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끝없는 대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 사이의.

우리가 무엇이었는지와 무엇이 되어 가는지 사이의.

그 순간부터 나는 의심을 적으로 대하기를 그만두었다.

여행의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모든 의심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소음이다.

어떤 것은 두려움이다.

어떤 것은 단순한 혼란이다.

그러나 다른 의심들이 있다.

더 깊은.

더 조용한.

더 진실한.

계속 되돌아오는 의심들.

해마다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의심들.

들어 달라고 청하는 의심들.

나는 그것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종종 중요한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변형.

하나의 진실.

하나의 방향.

아직 탐사되지 않은 우리의 한 부분.

돌아보면, 나는 이제 모든 것에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명받지 않는다.

진정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답은 바닥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은 하나의 온전한 삶을 낳을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시간이 나에게 남겨 준 가장 값진 교훈  
가운데 하나다.

답만을 찾지 마라.

그 답을 낳은 질문을 찾아라.

모든 의미 있는 신념 뒤에.

모든 진짜 변화 뒤에.

모든 중요한 선택 뒤에.

이야기될 가치가 있는 모든 이야기 뒤에.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질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거기다.

답보다 훨씬 먼저.